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ordination Image of Korean city woman's Face Color(5YR 7/3) and Clothes Colors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학과
교 수 이 정 옥
밀양산업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전 강 권 미 정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학과
박사과정 박 영 실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how each clothes colors on the basis of 5YR 7/3 face color affect clothes colors images as follows : (1) what general consciousness of clothes colors is, (2) how the impression of the harmony of 5YR 7/3 face color and clothes colors is, (3) when we divide clothes colors according to the property of colors - chromatic color and achromatic color, cool color · neutral color · warm color, in tone, in color colume - if there is the difference of visual evaluation, (4) image analysis of 45 clothes colors with the view of each kind of adjectiv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the following :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general consciousness on clothes colors, when subjects chose clothes, they most considered colors and they also considered their face colors. They would choose the color of clothes which were becoming to their having clothes colors or their face colors when they bought clothes.

2. The impressions of coordination of 5YR 7/3 face color and clothes colors consisted of three dimensions - evaluation, activity and harmony.

3. It was known th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visual evalut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dividing the clothes colors by property of colors, there were such

notable differences that they might effect the coordination images of face color and clothes colors differently.

4. After arranging 45 clothes colors on the graphs in 17 adjectives, gethering them together in each dimension an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evaluation dimension, estimation of yellow, light green column were low and that of achromatic colors were high. That is, it was known that the evalution dimension was concerned with hue of the color properties. In activity dimension, there were different image according to each adjectives. That is, it was known that the activity demension was concerned with value and chroma of the color properties. In harmony dimension, achromatic columm was high and yellow, green yellow, vivid green columm were low in harmony. That is, it was known that the harmony demension was concerned with hue of the color properties.

Ⅰ. 서 론

의복디자인에 있어서도 의복의 실루엣이나 패턴보다 색채가 의복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에 대한 미적가치평가에서도 색, 스타일, 무늬나 옷감, 세부장식의 순으로 평가됨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1] ~ [4]

의복에 있어 색채는 얼굴색과 상호관련을 지으며 인지되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의복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굴색을 기본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어울리는 색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복색 기호에 관한 연구는 의복색 기호와 성격과의 상관연구[5] ~ [8]~와 의복 기호색에 대한 연구[9] ~ [14]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착용자의 얼굴색이나 머리카락색 등 신체적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수의 의복색 표본만을 사용하고 있다. 착용자의 얼굴색을 고려한 연구로는 우리나라 도시여성의 평균피부색만을 측정, 연구한 김지은[15]의 연구와 일본인의 피부색을 가지고 이미지 조사를 행한 橋本令子 外 2人[16]의 연구가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은 인체에 착장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고 복장미는 인간의 개성, 皮膚色, 체형등과 조화되는 상태에서 생겨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의복의 바탕이 되는 인체 즉 착용자에게 중점을 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 첨단 과학화가 주조를 이루어 가는 경향에 발맞추어 패션계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작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직접 의복색을 염색하여 제작하지 않아도 색상변환을 이용한 다양한 의복색의 가상처리 등을 할 수 있어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연구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의복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을 분석하고, 2) 5YR 7/3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밝히며 3) 의복색을 색의 속성별 즉 유채색·무채색, 한색·중성색·난색, 톤별, 색상계열별로 나누어 볼 때 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또 4) 17개 형용사별로 의복색의 이미지 분석을 함으로써 각 의복색이 배색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색선정 (얼굴색, 의복색)

얼굴색은 김지은[17] 과 최영훈[18] 가 측정한 皮膚色(우리나라 도시여성의 평균 얼굴색)을 토대로 하였고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로 인해 5YR 7/3로 선정하였다.

의복색은 먼셀색상환에서 기본색 9색에 대해 명

도, 채도별 4단계의 36색과 그 외 기본색 5색을 합해 총 41색의 유채색과 무채색 4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복색 시료는 〈표 1〉과 같다.

추출되었다. 신뢰도 검사결과, 전체 Cronbach's α= 0.78로 신뢰도가 높아 이들 17쌍의 형용사를 평가도구로 사용한다.

〈표 1〉 얼굴색과 의복색 시료

번호	색 명	의복색	얼굴색	번호	색 명	의복색	얼굴색
1	밝은 주황	5YR 8/7	5YR 7/3	24	바 다 색	10BG 5/8	5YR 7/3
2	주 황	5YR 6.5/14	5YR 7/3	25	밝은 파랑	5B 7/7	5YR 7/3
3	둔한 주황	5YR 5/3	5YR 7/3	26	파 랑	5B 4/8	5YR 7/3
4	어두운주황	5YR 3.5/3	5YR 7/3	27	둔한 파랑	5B 4.5/3	5YR 7/3
5	귤 색	10YR 8/13	5YR 7/3	28	어두운파랑	5B 2.5/2	5YR 7/3
6	밝은 빨강	5R 6/10	5YR 7/3	29	밝은 남색	5PB 5.5/11	5YR 7/3
7	빨 강	5R 4.5/14	5YR 7/3	30	남 색	5PB 3.5/11	5YR 7/3
8	둔한 빨강	5R 4.5/2	5YR 7/3	31	둔한 남색	5PB 4/3	5YR 7/3
9	어두운빨강	5R 3/4	5YR 7/3	32	어두운남색	5PB 2.5/5	5YR 7/3
10	다 홍	10R 5.5/12	5YR 7/3	33	밝은 보라	5P 6/11	5YR 7/3
11	밝은 노랑	5Y 9/7	5YR 7/3	34	보 라	5P 4/11	5YR 7/3
12	노 랑	5Y 8/12	5YR 7/3	35	둔한 보라	5P 4.5/3	5YR 7/3
13	둔한 노랑	5Y 7/3	5YR 7/3	36	어두운보라	5P 2.5/3	5YR 7/3
14	어두운노랑	5Y 4/3	5YR 7/3	37	붉은 보라	10P 4/12	5YR 7/3
15	노랑 연두	10Y 8/10	5YR 7/3	38	밝은 자주	5RP 7/7	5YR 7/3
16	연 두	5GY 7/10	5YR 7/3	39	자 주	5RP 4/11	5YR 7/3
17	둔한 연두	5GY 6/3	5YR 7/3	40	둔한 자주	5RP 4.5/3	5YR 7/3
18	어두운연두	5GY 4.5/3	5YR 7/3	41	어두운자주	5RP 2.5/6	5YR 7/3
19	밝은 녹색	5G 7.5/6	5YR 7/3	42	흰 색	N 9.5	5YR 7/3
20	녹 색	5G 5/9	5YR 7/3	43	회 색	N 5.5	5YR 7/3
21	둔한 녹색	5G 4.5/3	5YR 7/3	44	어두운회색	N 3.5	5YR 7/3
2	어두운녹색	5G 3/3	5YR 7/3	45	검 정	N 1.0	5YR 7/3
2	청 록	5BG 4.5/8	5YR 7/3				

2. 측정도구의 제작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여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즉 고찰 및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49형용사쌍을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8개의 자극물을 보고 7점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대구시내 여자대학생 125명로 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Varimax회전 후의 인자분석 결과 49형용사쌍에서 17형용사쌍으로

2) 본조사

① 자극물 제작(눈, 코, 입의 얼굴형태인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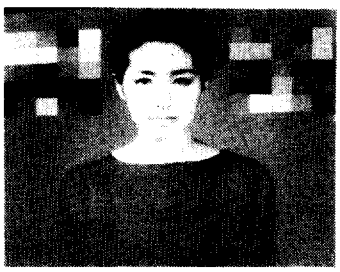
컴퓨터 기종은 그래픽 시스템인 Mac Ⅱ CX이며 1680만 가지를 지닌 32bit로 칼라 스캐너를 사용하여 내장된 Photo Shop을 이용하여 그래픽하였다. 소프트웨어는 포토 스타일러(Photo Styler)와 루메나 32(Lumena 32)을 이용하였다. 모델 선정을 위한 얼굴형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타원형으로 하였고 얼굴비는 가로 : 세로 = 1 : 1.414인 태평양 화학의 컴퓨터 메이컵 시뮬레이션실에서 여성의 메이컵을 위해 제작, 사용하고 있는 얼굴비

를 적용하였다. 모델 선정은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여대생 1명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자극물 제작은 예비조사에서 상의로 즐겨 입는 의복 종류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T셔츠를 모델에게 착장시킨 후, 모델의 상반신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였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조명외 기타환경이 삽입된 상태)한 사진을 입력상치 스캐너를 통해 입력, 모니터로 출력한 후 스튜디오의 조명이나 기타 환경이 삽입된 상태는 복상색 제작에 장해가 되므로 sample color balance를 조절한다. 그리고 얼굴색과 의복색은 프로그램내의 색배합 RGB(red, green, blue)방식을 사용하여 공업진흥청에서 발간한 실용한국표준색표집과 직접 대조하여 sample color를 만들어 입력하였다. 우선 스캐너로 입력된 인물사진에 5YR 7/3 얼굴색을 입력하고 sample color(45장의 의복색)을 차례로 하나씩 입력하여 총 45장의 자극물을 만들었다. 바탕은 헤어스타일에 의한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N 1.0으로 하였다. 출력상치로는 직접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를 촬영하였다. 카메라 기종은 Nikon F2이다.

〈그림 1〉 원판사진

② 설문지 작성

관찰자의 일반사항, 의복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에 관한 문항과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 측정을 위해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한 이미지조사용 1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2〉 원판사진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모니터를 띄우고 45의복색중 하나를 T셔츠에 칼라링한 모습

〈그림 3〉 최종으로 완성된 45장의 자루물중 하나로 얼굴색은 5YR 7/3 이고 의복색은 5R 4.5/14 임. 〈표 1〉의 7번째 자극물임.

3.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의사대학생 99명으로 하였다. 자극물은 총 48장(신뢰도 검정용 3장 포함)으로 난수표를 이용해 3부류로 랜덤샘플링하였다. 1부류에 16장씩 3부류로 나누어 1회 16장씩,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각 자극물에 일련의 번호를 매긴 후 난수표를 이용하여 랜덤으로 제시하였으며 17형용사쌍들도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조사자가 사진을 직접 보여주고 응답자는 직접 질문지를 기입토록 하였으며 쾌청한 날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북창측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조사하였다. 측정거리는 60cm로 1 : 1로 응답자가 직접 그 느낌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자극물 제시는 회색지위에 1장씩 따로 붙였으며 1자극물당 1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기간은 1992. 8. 24 ~ 1992. 9. 12에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조사된 결과의 분석은 PC용 SAS를 이용하였다. 의복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의 요인구조는 SD법에 따라 평가된 7단계 평가에 대해 1~7점을 배점하여 각 형용사의 각 자극물마다의 피험자 평정 평균치를 구해 이를 변수로 하여 상관계수를 산출, 주인자해석에 따른 인자분석을 하고 Varimax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색의 속성별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F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17개 형용사별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여 5YR 7/3의 얼굴색을 바탕으로 의복색을 달리하였을 때 의복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의복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에 관한 분석

의복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색상이 46%, 형태가 38%, 재질이 16%로 나타나 의복선택시 색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의복선택시 자신의 의복색상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가 18%이고, 높다가 68%로 총 86%가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의복색 선택시 가장 신경쓰는 것으로 체형이 36%이고, 자신의 기호색이 28%이며, 얼굴색이 26%로 의복색을 선택할 때 얼굴색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의복착용시 피부색과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정도는 많이 쓴다가 16%이고, 조금 쓰는 편이 58%로 총 74%가 신경을 쓴다고 답하였다. 의복구입시 색상선택원인으로는 가지고 있는 의복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이므로가 42%,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는 색이므로가 38%,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므로가 16%, 유행하는 색이므로가 4%로 대체로 가지고 있는 의복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이나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구입후 색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걸어두는 옷이 있다면 그 이유는 얼굴색과 어울리지 않으므로가 46%, 뚱뚱해 보이거나 너무 야위어 보이므로가 32%, 유행색이 아니므로가 13%, 계절색과 어울리지 않으므로가 9%로 얼굴색과 체형의 고려는 의복착용에 있어 중요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2.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 인자분석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의 인자분석결과 3개의 인자(평가성, 활동성, 조화성)가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량은 61%이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제 1 인자 : 설명 변량이 42 %이고 마음에 드는 - 마음에 들지않는, 보기좋은 - 보기싫은, 멋있는 - 멋없는, 아름다운 - 추한, 매력있는 - 매력없는, 세련된 - 촌스러운, 상쾌한 - 우울한 등의 순으로 높은 인자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Osgood의 평가성 인자와 관계가 깊어 평가성 인자로 명명하였다.

2) 제 2 인자 : 설명 변량이 34%이고 가벼운 - 무거운, 밝은 - 어두운, 산뜻한 - 칙칙한,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어려보이는 - 나이들어보이는, 시원한 - 답답한 등의 순으로 높은 인자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Osgood의 활동성 인자와 관계가 깊어 활동성 인자로 명명하였다.

3) 제 3 인자 : 설명 변량이 24%이고 조화된 - 부조화된, 얼굴색과 어울리는 - 얼굴색과 어색한, 인물이 돋보이는 - 인물이 돋보이지않는, 사고싶은 - 사고싶지않은 등의 순으로 높은 인자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조화성 인자로 명명하였다.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 볼 때 평가성 인자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활동성 인자로 이 2가지 인자가 공통변량의 76%를 설명하여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의 의미공간내에서 평가성과 활동성이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적 차원이 평가성, 조화성의 인자로 나타난 것은 평가적 인상은 단일차원이 아니라는 Rosenberg, Nelson, Vivekananthan[19]과 강혜원, 이주현[20], 이주현[21]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3. 색의 속성별에 따른 배색이미지 차이

〈표 2〉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 인자분석

척 도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인 자
마음에 드는 - 마음에 들지않은	0.86645	-0.06762	-0.08700	
보 기 좋 은 - 보 기 싫 은	0.85808	-0.05231	-0.08305	
멋 있 는 - 멋 없 는	0.83223	-0.09068	-0.11568	제 1인자
아 름 다 운 - 추 한	0.81661	0.01085	-0.12896	평가성 인자
매 력 있 는 - 매 력 없 는	0.78834	-0.01281	-0.09338	
세 련 된 - 촌 스 러 운	0.75034	-0.10314	-0.03326	
상 쾌 한 - 우 울 한	0.44002	-0.10314	-0.17889	
가 벼 운 - 무 거 운	0.01230	0.84540	-0.06897	
밝 은 - 어 두 운	-0.04149	0.82799	-0.03518	
산 뜻 한 - 칙 칙 한	-0.16967	0.76161	0.28543	제 2인자
활 동 적인 - 비 활 동 적 인	-0.07207	0.73034	0.15782	활동성 인자
어려보이는 - 나이들어보이는	-0.03877	0.66728	0.05529	
시 원 한 - 답 답 한	-0.11350	0.65609	0.18175	
조 화 된 - 부 조 화 된	-0.15525	0.12133	0.78808	
얼굴색과 어울리는 - 얼굴색과 어색한	-0.06310	0.04083	0.78061	제 3인자
인물이 돋보이는 -인물이 돋보이지않는	-0.12161	0.15471	0.72715	조화성 인자
사 고 싶 은 - 사고싶지않은	-0.15945	0.16916	0.72288	
고 유 치 (固 有 値)	4.343	3.501	2.517	
총 설 명 변 량 (%)	25.55	20.59	14.81	
공 통 설 명 변 량 (%)	41.74	33.98	24.27	

각 인자에 대하여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에서 색의 속성별 평가의 차이를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유채색과 무채색간의 배색이미지 차이

평가성, 활동성, 조화성의 세 인자에 대한 유채색 의복색과 무채색 의복색간의 시각적 평가는 세 인자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유채색은 활동성이 높고 무채색은 평가성과 조화성이 높게 나타나 유채색 의복색과 무채색 의복색은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가성 인자에서는 무채색 의복색이 유채색 보다 마음에 드는, 보기좋은, 세련된의 경향을 나타내고 활동성 인자에서는 유채색 의복색이 무채색 보다 밝은, 산뜻한, 활동적인, 어려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조화성 인자에서는 무채색 의복색이 유채색 보다 조화된, 얼굴색과 어울리는, 인물이 돋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채색 의복색은 활동성이 높고 무채색 의복색은 평가성과 조화성이 높았다.

2) 색의 온도감(한색, 중성색, 난색)에 따른 배색이미지 차이

평가성, 활동성, 조화성의 세 인자에 대한 한색, 중성색, 난색 의복색간의 시각적 평가는 활동요인만이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 검정 결과 활동성 요인에서 중성색(A)〉 난색(A)〉 한색(B)의 의복색 순으로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활동성 인자에서는 중성색 의복색〉 난색 의복색〉 한색 의복색의 순으로 가벼운 밝은, 산뜻한, 활동적인, 어려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성색 의복색인 연두나 자주가 얼굴색과의 조화에서 활동적으로 느껴짐을 의미하였다.

〈표 3〉 색의 속성별에 따른 배색이미지의 차이

요인별 / M,SD,F / 색의 속성별		평가요인			활동요인			조화요인		
		M	SD	F-value	M	SD	F-value	M	SD	F-value
유 - 무채색별	유채색	4.10	1.04	6.59***	4.63	1.01	-7.68***	3.88	1.19	7.29***
	무채색	4.64	1.14		3.83	1.51		4.55	1.29	
한 - 난색별	한 색	4.14	1.03	1.80	3.89	1.26	6.35**	3.98	1.16	1.20
	중성색	4.11	1.02		4.14	1.12		4.00	1.16	
	난 색	4.21	1.03		4.06	1.34		4.07	1.17	
톤 별	밝은 톤	4.30	1.02	6.69**	4.82	0.76	637.99***	4.03	1.12	2.85*
	순색 톤	4.20	1.05		4.88	0.90		3.95	1.20	
	둔한 톤	4.03	1.01		3.45	0.88		4.07	1.08	
	어두운 톤	4.09	0.96		2.94	0.84		4.16	1.13	
색상계열별	빨강 계열	4.34	0.97	6.04***	3.69	1.10	9.17***	4.36	1.04	7.74***
	주황 계열	4.25	1.11		3.85	1.42		4.15	1.22	
	노랑 계열	3.95	0.98		4.06	1.35		3.72	1.13	
	연두 계열	3.93	0.94		4.59	0.98		3.69	1.10	
	녹색 계열	3.93	1.07		3.92	1.01		3.92	1.16	
	파랑 계열	4.16	0.99		4.24	1.38		3.92	1.13	
	남색 계열	4.24	1.06		4.00	1.11		4.07	1.18	
	보라 계열	4.27	0.92		4.03	0.95		4.12	1.08	
	자주 계열	4.41	1.01		4.41	1.21		4.31	1.18	

* $p<.05$, ** $p<.01$, *** $p<.001$

3) 톤(tone)에 따른 배색이미지 차이

평가성, 활동성, 조화성의 세 인자에 대한 밝은(light), 순색(vivid), 둔한 (dull), 어두운(dark)과 같이 톤별로 본 의복색간의 시각적 평가는 평가요인이 P<.01 수준에서, 활동요인이 p<.001 수준에서, 조화요인이 p<.05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 검정결과를 보면 평가요인에서는 밝은(A), 순색(A)〉 어두운(B), 둔한(B)의 2그룹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활동요인에서는 순색(A), 밝은(A) 〉 둔한(B) 〉 어두운(C)의 3그룹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화요인에서는 어두운(A) 〉 둔한(B), 밝은(B) 〉 순색(C)의 3그룹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톤이 다른 의복색은 평가요인, 활동요인, 조화요인 모두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가성 인자에서는 밝은, 순색 의복색이 어두운, 둔한 의복색 보다 마음에 드는, 보기좋은, 멋있는, 매력있는, 세련된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활동성 인자에서는 순색, 밝은 의복색〉 둔한 의복색〉 어두운 의복색의 순으로 가벼운, 밝은, 산뜻한, 활동적인, 어려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조화성 인자에서는 어두운 의복색〉 둔한, 밝은 의복색〉 순색 의복색의 순으로 조화된, 얼굴색과 어울리는, 인물이 돋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의복색 색상계열에 따른 배색이미지 차이

평가성, 활동성, 조화성의 세 인자에 대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색상계열간의 시각적 평가는 평가요인, 활동요인, 조화요인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 검정결과, 평가요인에서는 자주계열(A)〉 빨강, 보라, 주황, 남색계열(B)〉 파랑, 노랑계열(C)〉 녹색, 연두계열(D)의 4그룹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활동요인에서는 연두계열(A) 〉 자주, 파랑계열(B)〉 노랑, 보라, 남색계열(C)〉녹색, 주황계열(D) 〉 빨강계열(E)의 5그룹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조화요인에서는 빨강계열(A)〉 자주, 주황, 보라, 남색계열(B)〉 파랑, 녹색계열(C)〉 노랑, 연두계열(D)의 4그룹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색상계열별로 나누어 볼 때 색상에 따라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에 다른 영향을 준다. 평가성 인자에서는 자주〉 빨강, 주황, 보라, 남색〉 노랑, 파랑〉 녹색, 연두의 순으로 마음에 드는, 보기좋은, 멋있는, 아름다운, 매력있는, 세련된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활동성 인자에서는 연두〉 자주, 파랑〉 노랑, 보라, 남색〉 녹색, 주황〉 빨강의 순으로 가벼운, 밝은, 산뜻한, 활동적인, 어려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조화성 인자에서는 빨강〉 자주, 주황, 보라, 남색〉 파랑, 녹색〉 노랑, 연두의 순으로 조화된, 얼굴색과 어울리는, 인물이 돋보이는 등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4. 17개 형용사별로 본 의복색의 이미지분석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다. 17개 형용사에 대한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를 각 인자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성 인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노랑, 연두계열이 평가성이 낮았고 무채색계열은 평가성이 높았다. 특히 ① 마음에 드는-마음에 들지않는에 대해서는 빨강, 주황, 자주계열과 무채색 계열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노랑, 연두, 보라색 계열의 의복색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랑색 의복색은 얼굴의 黃味가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 죽은 사람의 피부색처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YR계통의 피부색과 조화되기 어려운 색은 보라계열이라는 통계결과와 일치한다[22]. ② 보기좋은-보기싫은에 대해서는 빨강, 주황, 파랑, 자주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보기좋은 것으로, 노랑과 연두계열은 보기싫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멋있는-멋없는에 대해서는 빨강, 주황, 파랑, 자주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멋있는 것으로 노랑, 연두, 녹색 계열이 멋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아름다운-추한에 대해서는 빨강, 주황, 녹색, 파랑, 남색, 보라, 자주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아름다운 것으로 노랑, 연두계열이 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매력있는-매력없는에 대해서는 빨

강, 주황, 파랑, 남색, 보라, 자주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매력있는 것으로 노랑, 연두, 녹색계열의 의복색이 매력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세련된-촌스러운에 대해서는 빨강과 남색계열, 무채색 의복색이 세련된 것으로 노랑, 연두, 파랑, 보라계열은 촌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성 인자는 색의 속성중 색상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2) 활동성 인자에 대해서는 몇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가벼운-무거운, ② 밝은-어두운, ③ 산뜻한-칙칙한, ④ 활동적인-비활동적인에 대해서는 밝은 의복색이 가벼운, 밝은, 산뜻한, 활동적인 것으로 어두운 의복색이 무거운, 어두운, 칙칙한, 비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색의 속성중 명도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⑤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순색이 어려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채도가 떨어지는 것 즉 색기가 약한 의복색은 나이들어보이는 인상을 가져 색의 속성 중 채도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즉 활동성 인자는 색의 속성중 명도와 채도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3) 조화성 인자는 전반적으로 무채색 계열의 평가가 높았다. ① 조화된-부조화된에 대해서는 무채색계열이 조화된다고 나타났다 또 연두계와 선명한 녹색계는 조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굴색의 赤味를 강조하는 색상이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3] ② 얼굴색과 어울리는-얼굴색과 어색한에 대해서는 빨강, 자주계열이 얼굴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노랑, 연두계열이 얼굴색과 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인물이 돋보이는-인물이 돋보이지않는에 대해서는 빨강, 파랑, 보라, 자주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인물이 돋보이는 것으로 주황, 노랑, 연두, 녹색계열은 인물이 돋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사고싶은-사고싶지않은에 대해서는 빨강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사고싶은 것으로 노랑, 연두, 녹색, 파랑계열은 사고싶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화성 인자는 평가성 인자와 같이 색의 속성중 색상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 의복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은 어떠한가, 2) 5YR 7/3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평가도구개발을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밝히며 3) 의복색을 색의 속성별 즉 유채색과 무채색, 한색중성색난색, 톤(tone)별, 색상계열별로 나누어 볼 때 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또 4) 17개 형용사별로 본 45 의복색의 이미지 분석을 함으로써 각 의복색이 배색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측정도구로는 자극물과 그에 다른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자극물은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시여성의 평균 얼굴색(5YR 7/3)을 기준으로 45 의복색을 변화시켜 제작한 45장의 칼라사진이다. 설문지는 17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된 7점척도로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 주는 이미지 측정에 사용되었다. 실험내용은 피험자가 의복색을 달리한 착용자의 모습을 담은 자극물을 보고 착용자로부터 받은 인상을 응답지에 응답하게 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여자대학생 99명이었다. 자료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인자분석, F검정외에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에 관한 분석결과 의복선택시 색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색상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색을 선택할 때 얼굴색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시 의복색상 선택원인으로는 가지고 있는 의복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이나 자신의 얼굴색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채에 대한 불만요인은 얼굴색과 어울리지 않거나 뚱뚱해보이거나 너무 야위어 보이므로 등으로 나타나 얼굴색과 체형의 고려는 의복착용에 있어 중요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 인자 분석 결과, 17개 형용사쌍으로 추출되었고 제 3인자 까지의 누적기여율은 61%였다. 제 1인자는 평가성 인자, 제

〈표 4〉 마음에 드는-마음에 들지않는에 대한 복장색의 분포

H.V.C	마음에 드는 〈 0 〉 마음에 들지않는					
5 R			6/10. 3/4	4. 5/2		
			4. 5/14			
			10R5. 5/12			
5 YR			8/7. 5/3			
			6. 5/14			
			3. 5/3	10YR 8/13		
5 Y				9/7. 8/12		
				7/3. 4/3		
				10Y 8/10		
5 GY				7/10		
				6/3		
				4. 5/3		
5 G			4. 5/3	7. 5/6		
			3/3	5/9		
			10BG 5/8	5BG 4. 5/8		
5 B			7/7	4/8		
			2. 5/2	4. 5/3		
5 PB			5. 5/11	3. 5/11		
			4/3	2. 5/5		
5 P				6/11/ 4/11		
				2. 5/3. 4. 5/3		
				10P 4/12		
5 RP			7/7. 4/11			
			2. 5/6			
			4. 5/3			
N		9. 5	5. 5			
		1. 0	3. 5			

〈표 5〉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에 대한 복장색의 분포

H.V.C	어려보이는 〈--- 0---〉 나이들어보이는					
5 R			4.5/14	6/10	4.5/2	
					3/4	
		10R5.5/12				
5 YR		6.5/14		8/7	5/3	
					3.5/3	
		10YR 8/13				
5 Y		8/12	9/7		7/3	
					4/3	
		10Y 8/10				
5 GY			7/10	6/3	4.5/3	
5 G			7.5/6	4.5/3.3/3		
			5/9	5BG 4.5/8		
				10BG 5/8		
5 B		7/7	4/8	2.5/2	4.5/3	
5 PB			3. 5/11	5. 5/11		
				4/3.6/11		
				2.5/5		
5 P			4/11	4.5/3.6/1	1	
				2.5/3		
				10P 4/12		
5 RP		4/11	7/7	4.5/3	2.5/6	
N			9. 5	5.5	3.5	
				1.0		

〈표 6〉 조화된-부조화된에 대한 복장색의 분포

H.V.C	조화된 〈 · 0 · 〉 부조화된					
5 R			6/10. 3/4			
			4. 5/14			
			4.5/2. 10R	5.5/12		
5 YR			6.5/14	8/7		
			3.5/3			
			5/3	10YR 8/13		
5 Y			9/7	8/12		
			7/3			
			4/3	10Y 8/10		
5 GY				7/10		
				6/3		
				4. 5/3		
5 G			7.5/6.3/3	5/9		
			4.5/3. 10B	G 5/8		
			5BG 4.5/8			
5 B			2.5/2	7/7		
				4/8		
				4.5/3		
5 PB			5. 5/11	3.5/11		
			4/3	2. 5/5		
5 P			6/11	4/11		
			4.5/3			
			2.5/3	10P 4/12		
5 RP			7/7. 4/11			
			4.5/3			
			2. 5/6			
N		1.0	9.5			
			5.5			
			3.5			

2인자는 활동성 인자, 제 3인자는 조화성 인자로 구성되었다.

세째, 의복색을 색의 속성별로 분류하여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과 무채색간의 시각적 평가는 평가차원에서는 무채색이 유채색 의복색보다 평가성이 높았고 활동차원에서는 유채색이 무채색 의복색보다 활동성이 높았다. 조화차원에서는 무채색이 유채색 의복색보다 조화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한색, 중성색, 난색 의복색간의 시각적 평가는 활동차원에서 중성색, 난색 〉 한색의 순으로 활동성이 높았다. 의복색을 톤(명도 / 채도)별로 나누어 유의차검정을 한 결과 평가차원에서는 밝은, 순색 〉 어두운〉 둔한 톤의 순으로 평가성이 높았고 활동차원에서는 순색, 밝은 〉 둔한 〉 어두운 톤의 순으로 활동성이 높았다. 조화차원에서는 어두운 〉 둔한, 밝은 〉 순색 톤의 순으로 조화성이 높았다.

또 각 색상계열간의 시각적 평가는 평가차원에서는 자주 〉 빨강, 보라, 주황, 남색 〉 파랑, 노랑 〉 녹색, 연두계열의 순으로 평가성이 높았고 활동차원에서는 연두 〉 자주, 파랑 〉 노랑, 보라, 남색 〉 녹색, 주황 〉 빨강계열의 순으로 활동성이 높았다. 조화차원에서는 빨강 〉 자주, 주황, 보라, 남색 〉 파랑, 녹색 〉 노랑, 연두계열의 순으로 조화성이 높았다. 즉 의복색을 색의 속성별로 분류해 볼 때 각기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얼굴색과 의복색의 배색이미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째, 17개 형용사쌍을 가지고 45개의 자극물의 배색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평가성 인자에 대해서는 노랑, 연두계열이 전반적으로 평가성이 낮았고 무채색계열은 평가성이 높았다. 즉 평가성 인자는 색의 속성중 색상이 관여함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인자에 대해서는 색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지각을 하였다. 색의 성질별로 분류해 볼 때 색의 중량감에 관여하는 형용사쌍 가벼운 - 무거운, 밝은 - 어두운, 산뜻한 - 칙칙한,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에서는 색의 속성중 명도가 관계깊었고 어려보이는 - 나이들어보이는에서는 색의 속성중 채도가 관계깊었다. 즉 활동성 인자는 색의 속성중 명도와 채도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조화성 인자는 전반적으로 무채색계열과 자주계열이 조화된 색으로 연두계와 선명한 녹색계열은 부조화된 색이라고 나타났다. 얼굴색과 어울리는 - 얼굴색과 어색한에 대해서는 빨강, 자주계열이얼굴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노랑, 연두계열이 얼굴색과 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이 돋보이는 - 인물이 돋보이지않은에 대해서는 빨강, 파랑, 보라, 자주색 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인물이 돋보이는 것으로 주황, 노랑, 연두, 녹색계열은 인물이 돋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싶은 - 사고싶지않는에 대해서는 빨강계열과 무채색 의복색이 사고싶은 것으로 노랑, 연두, 녹색, 파랑계열은 사고싶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화성 인자는 평가성 인자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5YR 7/3 얼굴색을 바탕으로 45가지 의복색변화에 따른 배색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동일디자인의 의복일지라도 의복색 변화에 따라 의복이 갖는 이미지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복디자인 요소중 색채만으로 국한되었고 피험자도 임의표집에 의해 표집된 여대생이었다. 또한 색선정도 우리나라 도시여성의 평균 피부색인 5YR 7/3의 1가지 얼굴색과 45가지의 의복색으로 제한하였다. 또 얼굴색과 의복색 선정시 색의 정확도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내에 색배합 방식을 각 디자이너가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RGB방식에서 표준 색표집 Munsell방식으로 바꾸어 대중화시키는 것이 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데는 위의 제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할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Birren, F. *Light and environment,* New York : Berkley Co., 1969, p.15

2) 上野情一郎. 衣服の嗜好に關す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 Vol. 21,No.7, 1980.

3) 壁谷久代 外 2人. 被服におけ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關する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會志纖, Vol.21,

No.8, 1980.
4) 오현정. 의복의 미적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5) 문선희. 한국여성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6) 박광희.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7) 나수임, 한명숙. 여고생들의 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0, No.1, 1986.
8) 김소영. 성인여성의 한복색채선호도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9) 권미세. 한국여대생의 기호색과 착용기호색에 관한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5,6집, 1977.
10) 김소형. 남자대학생 의복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1) 김인수.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2) 김미숙. 의복색채 선호 경향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3) 박준경. 우리나라 노년층 의복색 기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4) 김기령. 여자 중학생의 의복색 선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5) 김지은. 우리나라 도시여성의 기성복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6) 橋本令子 外 2人(1984). 皮膚色と服裝色との調和, 日本家政學雜志 Vol.35, No.6, 1984.
17) 김지은(1988). 전게서, p.30.
18) 최영훈 편저(1990). 색채학개론, 서울 : 미진사.
19)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A multi - 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 1968.
20) 강혜원 ·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Ⅰ), 한국의류학회지, Vol.14, No.1, 1990.
21)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22) 山崎勝弘. 被服意匠學, 朝倉書店, 1964, p.164.
23) 山崎勝弘. 전게서, 1969. p.164.